# 2023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심사 총평

## ■ 시각예술창작지원 분야

올해 안산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 지원에는 총 10개 전시에 대한 개인과 단체의 지원이 있었고, 서류 심사에서 총 5개 전시를 선정하여 면접 심사를 진행하였다.
청년 예술가부터 중견 예술가에 이르기까지 각 프로젝트의 주제와 기획이 저마다의 조형성과 색채를 지녔으나, 본 심의에서는 예술성,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다음 세 명의 예술가를 선정하였다.

안산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지 올해 30년이 되는 안예환 작가는 중심 오브제인 '보자기' 작업을 위시로 지난 작업과 오늘의 작업을 아카이빙하는 회고전 성격의 전시를 기획하였다. 이번 전시는 안예환 작가의 예술 인생을 톺아 보는 동시에 1980년부터 이어진 여성주의 미술사의 공백을 채워 나간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업으로 기대된다.
'영원과 미술'이라는 주제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 온 김세중 작가는 기존 주제와 연결되면서도 '돌멩이'라는 새로운 오브제를 통해 모더니즘 미술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사업이다.
청년 작가로 꼽을 수 있는 이재이 작가는 문학적 글쓰기에서 받아쓰기라는 인문학적 소재로 물질적 표현 방식과 상호 작용하는 융합적 예술 현상을 보여주려는 침신성이 주목된다. <딕테>라는 텍스트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해석해 나갈지, 그 실험적 태도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어려운 예술 환경 속에서도 지침 없는 열정으로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창작해 내는 안산의 예술가들에게 기대와 응원을 함께 보낸다.

2023. 03. 18.

심사위원 강은주, 이정화, 신혜경